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0.(수) 12:00
(지 면) 2026. 6. 11.(목) 조간

공공 AI 구축, 더 쉽고 빠르게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배포

- 8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
-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 기반’을 이용한 서비스 구축 전 과정 표준화
- 6월 10일(서울)·12일(세종) 대규모 설명회 개최, 현장 소통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가이드)는 오는 8월 28일 개정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 기반’ 우선 이용 조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 기반’은 개별 기관의 기반 시설 중복 구축에 따른 예산 낭비와 기술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모델, GPU 등을 공동 이용하는 체계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 기획부터 운영까지 5단계 표준화, 현장 맞춤형 실행 안내서 제공

이번 지침서는 단순한 이론 설명을 넘어 현장 담당자가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안내서’ 형태로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각 공공기관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 기반’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기획-예산-계약-구축-운영’의 5단계로 표준화하여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이 단순히 학습한 내용으로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부의 정확한 최신 문서(지식 데이터)를 먼저 찾아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게 만드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인 ‘RAG (검색 증강 생성) 우선 전략’을 반영했다. RAG(검색 증강 생성)에 따라 최신 정보를 우선 참조하도록 구현하여 인공지능(AI)이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막고, 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적용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 서울·세종서 대규모 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 현장 소통 강화

행정안전부는 가이드 배포와 함께 현장의 빠른 안착을 돕기 위해 오는 6월 10일(세종)과 12일(서울) 양일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담당자, 민간 인공지능(AI)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이드의 핵심 내용 설명과 함께 실제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 기반을 활용해 구축한 서비스 사례를 시연한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즉각 해소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 기반 이용체계 보완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AI)은 이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의 틀을 바꾸는 핵심 도구”라며, “이번 가이드가 현장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어, 예산 낭비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AI 민주정부’를 더 빠르게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책임자	과 장	정준우 (044-205-2281)
	공공인공지능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은하 (044-205-2282)

